

KB증권, 2년만에 'IB 왕좌' 탈환 ... 채권·주식발행 '독보적 성과'

중합대상 영예 - DCM·ECM·인수금융 부문 1위

KB증권이 2024년 자본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한 성과를 거둔 투자은행(IB)으로 선정됐다. 채권발행(DCM)과 함께 주식발행(ECM), 인수금융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제16회 한국 IB대상에서 중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수합병(M&A) 부문과 인수금융에서도 광범위한 성과를 냈다. 시장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KB증권의 채권 발행과 기업공개(IPO) 분야 강점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B증권이 왕좌를 되찾은 건 2년 만이다.

◀ IB 전 영역 독보적 성과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강한 DCM 부문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냈다. LG에너지솔루션(1조5600억원)과 LG화학(1조1천억, SK하이닉스(7500억원), 한화생명(6000억원) 등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성공시켰다. 특히 경기 침체와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해 이들 기업에 큰 힘이 됐다. 제이알글로벌리츠(신용증권 A-)과 SK에코플랜트

LG엔솔·화학 등 8대원 발행 주관
 부동산·건설기업도 '성공적 조달'

'IPO 대어' HD현대마린솔루션 등
 지난해 13개회 기업공개 이끌어

(A-) 두산(BBB0) 등이다.

KB증권은 KT(AA+)와 포스코(AA+) 등 초우량 회사채는 물론 대한항공(BBB+) 등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회사채도 수요 예측부터 매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목받았다. DCM 분야에서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 판단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적정 가격을 제시한 것이 비결로 평가된다.

KB증권은 ECM 분야에서도 지난해 13개 기업의 증시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경쟁력을 입증했다. 2024년 기준 최대 규모(7423억원) IPO였던 HD현대마린솔루션을 필두로 2차전지 정비업체 제일엔지니어, 전장 부품업체



제16회 한국 IB대상에서 KB증권이 중합대상을 받는다. 주태영 IB부장 겸 IB그룹장(앞줄 왼쪽부터), 김성현 대표이사, 안현출 IB2그룹장, 유승성 ECM부부장, 문성철 IB3그룹장 겸 부동산금융본부장 등 KB증권 임직원들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제공

탈린도탈출루센, 발란스 설비를 정비하는 우진엔텍 등의 성장을 성공시켰다.

ECM 분야에서 KB증권의 성과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KB증권은 지난해에만 53건의 신규 IPO 대표주관계약 을 맺었다.

◀ M&A 시장서도 존재감
 인수금융과 M&A 부문에서는 해외에

서물린 실적이나 돋보였다. 글로벌 대항사 모던도(PPEF)인 아플로가 세계 카드 결제 대안결제(POS) 시장 1위인 프랑스 인테크를 M&A하는 데 인수금융을 주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역시 세계 1위 전동모터 제조업체인 이노모티스 M&A 과정에도 인수금융을 제공했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소유한 MSS홀딩스를

인도네시아 APP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문을 수행했다. KB금융그룹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너지를 내는 데도 평가받았다.

국내 M&A 시장에서 DIG에어와 SK렌터카 등 우량한 기업에 인수금융을 제공해 투자자 눈길을 끌었다. M&A 부문에선 MBK파트너스 등의 영종정밀

제16회 IB대상 수상회사	
중합대상	KB증권
주식발행(ECM)	한국투자증권
기업공개(IPO)	미래에셋증권
채권발행(DCM)	NH투자증권
인수금융	삼성증권
IT/채무자	삼성SR자산운용
M&A 재무자문	삼일PwC
M&A 법률자문	김장법률사무소
M&A 회계자문	삼정KPMG
베스트 팀	UBS, 한앤컴퍼니

공개 매수 과정에서 복수의 공개 매수자와 매수 대리인 간의 주식 배정 및 세금 신청 업무를 수행해 역량을 입증했다.

장비시 심사위원장(승선대 총장)은 "달을 성사시킨 금액과 건수는 물론 시장의 평판과 실적 등 정성적인 평가에서도 KB증권이 높은 점수를 얻어 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며 "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영국 기자**

LG디스플레이 유상증자 흥행 이끌어

주식발행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제16회 한국 IB대상 주식발행(ECM) 분야 최우수 하우스로 선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ECM에서 한화리츠 등 30건의 대표주관을 맡아 1조5829억원어치 주식 발행을 이끌었다. 주관사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모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LG디스플레이 유상증자가 대표적이다. 발행금액이 1조2529억원에 달한 유상증자 공모 과정에서 827.38 대 1의 일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화리츠(8337억원, 신한알파리츠(1859억원) 주관도 맡았다. 지난해 이뤄진 12회 유상증자 9건 가운데 4건은 대표주관을 맡아 가장 많은 실적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업공개(IPO)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뒀다. 2021년 이후 3년만에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 게임주 시프트워치 IPO의 공모주 청약에서 증가금 18조5500억원을 모아 눈길을 끌었다. 더본코리아의 IPO도 대표로 주관하는 등 황제세상 면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봉준 기자**

산일전기 등 알짜배기 IPO 성공시켜

기업공개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제16회 한국 IB대상 기업공개(IPO) 분야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공모주 시장 변동성이 큰 가운데서도 알짜배기 IPO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일전기 IPO가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의 대표적인 성과다. 변압기 생산업체 산일전기는 지난해 7월 상장했다. 공모금액 2660억원, 상장 시가총액은 1조5659억원이다. 상장 첫날 주가가 43% 오른 데 이어 꾸준히 상승해 현재 공모가 대비 두 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석철 기자**

래되고 있다. 지난해 상장한 대다수 IPO 기업 주가가 상장 첫날 급등했다가 이튿날부터 급락한 것과 비교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변압기 수요가 확대되는 시기에 미래에셋증권이 적절한 자금 조달 파트너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현대엘리시티, 이노스페이스, 전진전선로봇 등 중형 IPO도 단독으로 대표 주관하며 실적을 쌓았다. 글로벌(로봇 자율주행)과 방크레이프(로봇 부품), 이아메비디에스(초정밀기기), 은크로스(AI 산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코스닥시장에 데뷔시켰다. **최석철 기자**

12.8조원 채권 발행 '건인차'

채권발행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2조8631억 원어치 채권(은행채·특수채 제외) 발행을 대표로 주관했다. 시장 점유율은 16.56%에 달했다. 일반 회사채를 필두로 연선전금융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다양한 채권 발행 부문에서 선두권에 올라 균형한 실적을 자랑했다. LG에너지솔루션(1조6000억 원), LG화학(1조원) 등 대기업의 회

사채 발행을 주관했다. 특히 교보생명(19년 만에 발행한 5000억원 규모 후순위 발행)을 단독 주관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요에 촉박부 흥행이 이끌어 최종 7000억원 규모로 발행을 완료했다.

NH투자증권은 또 대기업 및 다양한 원어치 채권(은행채·특수채 제외) 발행을 대표로 주관했다. 시장 점유율은 16.56%에 달했다. 일반 회사채를 필두로 연선전금융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다양한 채권 발행 부문에서 선두권에 올라 균형한 실적을 자랑했다. LG에너지솔루션(1조6000억 원), LG화학(1조원) 등 대기업의 회

지오영 등 대형거래 집중 ... 내실 챙겨

인수금융 삼성증권

한국 IB대상 인수금융 분야에서는 빅딜 중심으로 활약한 삼성증권이 수상 의 명예를 안았다. 삼성증권은 거래 건수는 많지 않지만 대형 거래에 집중해 내실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삼성증권은 발표 건수 기준 8건, 2조40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주선했다. 글로벌 사모펀드(PPEF) 운용사 블랙스톤이 MBK파트너스에 국내 최대 위탁휴먼케어 지오영을 매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거래 인수금액 8000억원 중 6000억원을 삼성증권

이 담당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1조7920억원에 이르는 에코비트 매각에서 삼성증권이 1500억원을 책임졌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대표하는 빅딜이 모두 참여해 입지를 강화했다.

리파이낸싱 주선에서도 존재감을 보였다. 전체 거래액이 1조8500억원 인 DIG에어가스 리파이낸싱에서 삼성증권은 5100억원을 책임졌다. CBC그룹 컨소시엄의 휴엘 리파이낸싱에서도 5600억원 가운데 4550억원을 주선했다. 이외에 커넥트웨이브(2850억원), 클레시스(1290억원) 등 다수의 리파이낸싱 거래에 참여했다. **최봉준 기자**

M&A 재무자문 63건 '압도적 1위'

M&A 재무자문 PwC

제16회 한국 IB대상 인수합병(M&A) 재무자문 분야에선 삼일PwC가 선두를 차지했다. 삼일PwC는 지난해 63건, 총 7조2576억원 규모의 경영권 거래를 자문했다. 건수와 거래액 모두 2위권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원료 기준으로도 74건, 9조2164억원 규모 거래를 수행해 가장 많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아쿠바온드(해의)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 거래에서 공적한 성과를 보였다. 포항시 사모펀드(PPEF) 아카데미의 제이시메디칼 인수(9303억원)

과정에서 매각 자문, 필리핀 기업의 컴포즈커피의 인수(4700억원) 거래에 선 인수자문을 수행했다.

M&A 시장이 불황을 맞은 지난해에도 삼일PwC는 중소·중견 거래에서 강한 지원 역량을 재확인했다. 에너지 기업 E이 팹팩에너지서비스를 8000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서 인수 측 자문을 맡은 것이 대표적이다. 폐기물업체 제이엔텍이 어퍼마켓피탈에 5100억원어치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에서도 매각 자문을 맡았다. 세미와금공정 양회의 열피탈 인수(4650억원) 자문도 삼일PwC가 지난해 거둔 성과다. **최석철 기자**

'작년 유일 兆단위' 강남 다에셋 인수

베스트 대체투자 하우스 삼성SR자산운용

제16회 한국 IB대상에서 부동산 투자 분야 투자은행·자산운용사에 주는 대체투자상은 삼성SR자산운용에 돌아갔다. 지난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인 서울 서초동 더 에셋 빌딩을 인수하며 시장을 이끈 점이 평가받았다.

다에셋 빌딩 인수금액은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유일할 조 단위 딜로 기록됐다. 당시 3.3㎡ 기준 강남입구역역(GBD) 최고 거래가를 경신하며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바꿨다.

지난해 상승세에 반작용으로 1258억원에 인수한 거래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삼성리츠 설립 이후 첫 자산 매입으로 리츠 성장의 기틀을 다진 거래라는 평가를 시장 안팎에서 받았다.

삼성SR자산운용은 개별 직권직과 삼성금융 계열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주요 연기금을 상대로 오피스빌딩, 물류센터, 주택 리테일 등 국내외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 삼성SR자산운용의 부동산 운용자산(AUM)은 29조 원으로 국내 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지난해 여러 대체투자 하우스가 고금리 여파로 거래 종결에 애를 먹은 가운데 이뤄져 특히 주목받았다. **민정진 기자**

법률자문 60건 ... '빅딜' 짝사랑

M&A 법률자문 KIM & CHANG

지난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부문에선 김앤장법률사무소가 1위를 차지해 IB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앤장은 바이어컴 거래 발표 기준으로도 60건, 25조4633억원 규모의 거래를 주관했다. 지난해 최대 규모 달인 에코비트 거래 매각 자문이 대표적이다. 지오영 거래에 인수와 매각 측 모두에 자문을 제공했다. 에코비트와 지오영 거래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난도 높은 거래로 꼽혔지만 잡마무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KI형질 거래에 인수 측을 리플린스태와 원은시스템 거래에서 매각 측 자문을 맡는 등 조 단위 '빅딜'은 대부분 간편 장 손을 거쳤다. M&A 시장이 침체된 지난해에도 조 단위 딜을 8건 주선했다. 김앤장은 M&A 법률자문과 관련해 인력 수준이 높고 수주도 많다. **배정원 기자**

12조 자문 ... 경쟁사와 격차 벌려

M&A 회계자문 삼정 KPMG

한국 IB 대상 인수합병(M&A) 회계자문 분야에선 삼정KPMG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삼정KPMG는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공적한 활약을 보였다. 델로이앤조인·EY와 경쟁을 벌였다. 삼정KPMG의 자문 실적은 발표 건수 기준 37건, 11조8411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 MBK파트너스가 블랙스톤 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지오영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MBK 측 회계자문을 맡았다. 총거래금액은 1조9500억원이다. 하반기에는 IMM컨소시엄(IMM)·베스트트렌드(IMM PE)의 에코비트 인수 딜에도 참여했다. 삼정KPMG는 매도자인 에이홀딩스(태양그룹) 측 회계자문을 담당하며 2조7000억원의 자문 실적을 보였다. **배정원 기자**

에코비트 매각 성공적 마무리

베스트딜 UBS

UBS의 에코비트 매각작업이 제16회 한국 IB대상 베스트딜로 꼽혔다. 인수 후보군과 긴밀히 소통하며 매각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에코비트는 태영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매물로 나왔다.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서도 UBS는 노력하게 매각 작업을 이어갔다. 칼라임과 거버넌스 등 글로벌 PEF를 인수 후보군으로 유치하고, 결국 IMM 프라이빗에쿼티 등에 매각하는 과정까지 끝까지 마무리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에코비트 주요 주주인 KKR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거래 마무리 직전 '12.3 게임 사법' 등의 정치 양재에 딜이 문제가이 마무리된 데는 UBS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정호 기자**

스페셜티 인수로 SK 구조조정 도와

베스트딜 Hahn & Company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12월 SK로부터 SK스페셜티 지분 85%를 2조70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SK스페셜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삼불화질소(NF3) 등 특수가스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한앤컴퍼니는 그룹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선 SK그룹의 고인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SK스페셜티의 파인 세라믹 사업부를 3300억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이외에 한앤컴퍼니는 SK디앤디와 SKC 필름사업부, SK해운을 인수하는 등 지난 7년여간 SK그룹과 7건의 거래를 했다. **최봉준 기자**